나한테 다가오는 고난은 고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는 나의 수행이다

☞ 21면에서 계속

드니까 '나는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오는 대로 심부름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를 여러분의 차원대로 능력대로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몸까지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허공에서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만한 것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저 야단들입니다.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이 그냥 한 찰나에, 찰나찰나에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구를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나 깨나 움죽거리는데, 이것도 (법상을 짚어 보이시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 네 것 이렇게 마음으로 붙잡고 '요거를 해야 옳을까, 안 해야 옳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붙들고 돌아가니까 이게 업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모두가 다가오는 대로 업을 지어서 외려 그 윤회성을 바로 입력시키게 됩니다, 그게.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에너지가 허공만 하게 큰 에너지가 있다 하면 그 에너지 덩어리는 여러분이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쓰여지고 선으로 생각한다면 선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고 선이고 한군데서 나옵니다. 한 에너지 덩어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이다 선이다 하고 양단간으로 두 마디만 하지만, 그 천차만별의 악과 선은 가지가지로 다릅니다. 마음으로 악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선을 짓고, 행동으로 선을 짓는가 하면 행동으로 악을 짓고, 말로 악을 짓는가 하면 말로 선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고(苦)가 고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차원을 높이기 위해 나한테 다가오는 재료로구나 하고선, 그냥 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 주는 나의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하나도 고가 될 수 없습니다. 고 하나만 떨어진다면 집착도 떨어지고 멸도 떨어지고 도도 떨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고집멸도(苦集滅道), 이 사제법이 하나만, 고 하나만 없다 한다면…, 여러분이 망상이 나오느니 뭐니 뭐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팥죽 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팥죽 방울이 나오듯, 한 몸뚱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제자리에다 놓으라는 데도 그렇게 못 놓겠습니까? 그 팥죽 방울 나오는 대로 제자리에다가 놓는다면 팥죽이 익어서 방울은 다시 안 나옵니다. 이 팥죽 방울이 나온다고 불을 밀리고 놓고 밀리고 놓고 이래 보십시오, 팥죽이 익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팥죽 방울을 생각하지 말고, 팥죽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팥죽이다. 이것 전체가 팥죽이다.' 이런다면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방편으로 말을 하자면 또 이런 게 있죠. 어느 집에 가서 머슴을 사는데 말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지, 주인의 일을 안팎으로 일일이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참견을 하고. 그럼 주인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슴으로 살면, 종으로 살면 살았지 웬 주인 일에 그렇게 참견이 많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걸. 그리고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살림을 하는 거니까. 그와 똑같은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영원치가 못합니다. 종과 같습니다. 옷이 헐면 주인은 바로 옷을 다시 갈아입습니다. 그와 같이 몸뚱이도 역시 옷과 같습니다. 옷 입은 것은 수명이 짧고, 이 몸이라는 옷 입은 것은 수명이 좀 길다 뿐이지요. 또 옷이 맞지 않으면 후딱 벗어 버립니다. 벗어 버리고 딴 거 입습니다. 그와 같이 애들 적에도 죽는 수가 있고, 젊어서도 죽는 수가 있고, 늙어서 죽는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가져갈 수 있을지언정 참나는 가져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나는 영원하니라.' 한 겁니다. 영원한 그 자체가 바로 왜 똑같지 못합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데서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욕심이 과하고 착이 많고 탐심이 많아서 이렇게 모두가 벌어지는 겁니다. 한 식구가 모여서 사는 것도 우리가 한 철 놀러 나와서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한 철 살다가 헤어질 때는 다시금 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집착하겠습니까?

나라는 조건 이 자체도 바로 헌신같이 버려야만 됩니다. 허나 이거는 부처님 뜻에도 그렇고, 육신을 낳아 준 부모의 뜻도 그렇고 또는 아래로는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는 소임도 다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육신도 잘 섬겨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질계와 정신계가 이렇게 서로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때로는 애들을 공부를 시킨다 하더라도 정신쇠약이 되면 공부할 생각이 안 나고 의욕이 생기지를 않고 몸이 나른하고 졸립기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부모네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로회복제, 간장약이 피로회복제입니다. 그거라도 먹여서 나른하고 아프고 졸린 걸 쫓아내고 정신 회복이 되게끔 이렇게 돋구어 줘야만 모자라지가 않죠? 용기가 나고 의욕이 생기고 그런 거지 여러분도 아파 보세요, 의욕이 생기나. 이거는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 점심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밥을 먹이는 것도 약과 같습니다. 약 아닌 게 없습니다. 밥도 약이요, 과일도 약이요, 모든 게 약 아닌 게 어딨습니까? 약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약이고 밥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밥이지, 밥 따로 약 따로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죠, 먹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무조건 아무거나 먹여서 되는 건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섬기려면 반의사는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 **한 식구가 모여 사는 것도**
> **인연에 따라 만나서 한 철 살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 기간에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욕심내고**
> **무엇을 집착하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돌려놓는다면 아파서 돌려놓을 때는 바로 약사로 화해서 찰나에 약사가 됩니다, 내 주인공이. 일이 안 돼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다 맡길 때는 관세음이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칠성이 되고, 독성이 되고, 용신도 되고, 지신도 되고 모든 게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놓는 대로 이렇게 화해서 바뀌지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합격 기도를 붙인다고 하는데, 이 기도 붙이는 것도 스님네들이 얼마를 가져오라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적든 많든 형편대로 지극하게 자기가 마음을 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라야지, 가게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때에 조금도 의심 없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듯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가 가져오란다 하면 벌써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접수는 하되 돈은 얼마 얼마 가져오라는 법이 없어질 겁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일거일동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가정으로부터 내 마음, 내 몸, 내 식구 이것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법당 따로 있고 댁의 가정, 집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찰이든지 매일 와서 정진하고 정성 들이고 그렇게 잘한다면, 그저 자주 와서 노상 살다시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스님네들은 다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스님네들도 생각해 볼 점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 그 가정이 내 가정이요, 그 사람들이 나요, 그 아픔이 나요,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설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들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가정 섬기듯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비판하고 온통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마음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어떡하면 한 계단을 더 올라서나,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많고 그러는 반면에 국민들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잘못하면 애들이 힘이 든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도 부부가 항상 싸움질이나 하고 항상 엇갈리고 사네 못 사네 하고 야단들을 한다면 그걸 듣는 자식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구, 지겨워.' 이탈을 하게 되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터지게 되죠. 그러면 터진 연에 뭐를 붙들려고 그러느냐 하면 말로 해서 몸을 붙들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또. 몸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바로 마음으로써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는 저절로 오게 되고 따뜻하게 되죠.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이 불교다 하는 것이 종교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불(佛)이라는 건 일체 모든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바로 그 모든 일체 생명의 근본에서 서로가 교환하고 말하고 또는 통신이 되고 서로 이러는 것이, 안팎이 없이 통신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거, 혼자 살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라구요.

그러니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 있습니까, 가톨릭교에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불' 이라는, '교' 라는 그 두 글자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놓고 만날 믿고, 상대를 놓고 찾고, 상대를 놓고 원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뭔 짓들입니까?

"불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니까 어떤 선지식이 주먹을 불끈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불법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니 어떤 선지식은, 벌떡 뛰어 내려와서 그냥 멱살을 쥐고 발길로 차고 그냥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아이고, 죽겠다는 놈은 누구냐?" 하고 물었답니다. 말만, 그냥 좋은 말만 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경을 아주 달콤하게 다 읽었다 하더라도 그 속 내용을, 그 속 내용 하나에서 수만 가지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못났든 잘났든 "너만이, 네가 걸음을 걷고 있다. 누가 대신 걸어 주지 않는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리로 가게 하고 저리로 가게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 그것을 둘 아니게 다잡아서 다스리면서 가야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가요?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촛불 심지가 비뚤어졌으면, 심지가 비뚤어졌으니까 불도 비뚤어지고 한편으로만 타 가지고 촛농이 줄줄줄줄 다 흘러내립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졌으면 다시 다스려야죠. 촛불이 너무 길고 심지밥이 비뚤어졌으면 잘라 버리고 똑바로 세워 놓으면 촛농이 양면으로 흐르지도 않고 똑바로 잘 밝게 켜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다스려라 하는 뜻은 소가 만약에 남의 집 파밭이나 배추밭이나 이런 데로 막 들어가서 짓밟아 놓으면 안 되니까, 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길로 똑바로 가거라." 했던 거죠. 자기 고삐를 자기가 쥐고서 가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도 그려 놓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 나라도 그렇고 어느 회사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살림이 윤택해지고 잘해 나가려면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0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